

## 찾아가는 장애예술 콘서트 공모 심의평

- (심의위원1) 전반적으로 장애인 예술 활동에 관련하여 오랜 고민과 꾸준한 사업을 실천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정형화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러우나, 이러한 지원 활동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과 교육 그리고 공연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느낀다. 또한 기존 장애 예술 활동은 없었으나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 예술인들에게 기회의 장을 넓히고 관심을 가지게 된 단체가 생겨난 것 또한 이 사업이 가져야 할 방향성이라 생각하며 오늘 인터뷰한 모든 사업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심의위원2) 단체 모두가 사업의 취지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확실하게 제시되어 다섯팀 모두 선정하였다. 향후 지속 방향과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재단에서 노력해주길 기원한다. 또한 단체 역시 장애예술 인식 개선에 해당 사업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역할을 수행했으면 한다.
- (심의위원3) 심의에 올라온 다섯팀 모두, 기획 방향성이 각기 다르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어떤 팀은 장애예술 단체로서의 예술가다운 전문성을, 어떤 팀은 관객을 만나는 방법에 있어 오랫동안 노하우가 쌓인 강점들을 보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무대에 올랐을 때뿐만 아니라, 작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지점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때문에 지원금을 조율해서라도 다섯팀 모두가 선정되는 방향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 (심의위원4) 다섯 단체 모두 장애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업하고 있는 단체로 사업수행이 적합한 단체라고 평가되었다. 다만 예산의 한계로 예산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더 많은 예술인에게 발표와 활동의 기회를 드리고자 한 결정이니 본 사업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와 소통, 그리고 공감의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 (심의위원5) 인터뷰 심의에 올라온 다섯 단체는 각기 다른 단체의 성격과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당연하게 공연의 성격도 달라보였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장애 예술인에 대한 배려와 작품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 어느 한 팀 누락시키기 쉽지 않았다. 지원한 예산보다 조금 적게 배정이 되었으나, 다섯 팀 모두 사업에 참여하게 된 점으로 이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